

아산 오봉사 삼층석탑과 명문 분석

정은우* · 김지현**

- I. 머리말
- II. 아산 오봉사와 삼층석탑
 - 1. 오봉사와 삼층석탑의 현상과 제문제
 - 2. 삼층석탑의 특징
- III. 명문 판독과 분석
- IV. 오봉사 삼층석탑의 미술사적 의의
- V. 맺음말

I. 머리말

석탑은 불화, 불상 등 다른 장르에 비해 편년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극히 적은 편이다. 이는 석탑의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석탑의 조성기는 석탑의 표면에 음각으로 새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주로 석탑 내 봉안기 형식으로 만들어 사리장엄구와 함께 안치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이후 수많은 탑들이 도굴되면서 사리장엄구의 연구 뿐만 아니라 석탑 연구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남기게 되었다.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교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동아대학교 강사

석탑 연구에서 탑과 관련된 명문 자료는 탑의 조성시기와 발원자, 조성배경 등을 밝힐 수 있으며, 한국 탑파의 시기적 기준은 물론 나아가 탑파사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오봉사 삼층석탑은 형식상 고려시대의 탑으로 추정되지만 완전하지 못한 외형과 조형적 측면에서 주목받은 작품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 문화재지정과 관련하여 조사하던 중 주지스님으로부터 명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 과정에서 고려 초기인 987년에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명문에는 탑의 조성시기 뿐만 아니라 조성한 지역과 석탑 제작에 관련한 발원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고려시대 석탑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명문이 刻字된 위치는 상층기단 갑석 上面으로 외관상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앞으로 탑의 명문 기재 방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초기 기년명 석탑 자료로서 오봉사 삼층석탑을 새롭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오봉사와 오봉사 삼층석탑의 현상과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발견된 명문을 해석하며, 이를 토대로 이 석탑이 갖는 중요성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아산 오봉사와 삼층석탑

1. 오봉사와 삼층석탑의 현상과 제문제

오봉사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雪華山 북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주소는 온양 6동 중 하나인 장전동 50번지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의 말사로, 충청남도 전통사찰 제76호이다(도 1). 오봉사가 위치한 설화산은 송악면과 배방면에 걸친 해발 441c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산을 덮은 눈이 장관을 이룬다고 하여 설화산이라 불린다고 한다. 설화산은 다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연유하여 오봉산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오봉사는 오봉산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오봉



도 1 오봉사 전경



도 2 오봉사 삼층석탑, 고려 987년, 現高 약 277.5cm, 충남 아산시 오봉사

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웅전 앞에 위치한 삼층석탑과 오봉사 주변에서 발견된 조선시대의 기와 및 고려후기 토기 편 등을 통해 고려시대에 세워진 사찰로 추정된다.¹ 석탑을 제외한 나머지의 건물들은 모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²

오봉사 삼층석탑은 대웅전 앞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조성 당시의 원위치는 아니다. 백제문화개발연구원에서 1991년에 발간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에서는 ‘원래 탑의 위치는 寺域의 아랫부분 즉 「자비원」이라 적혀진 건물이 있던 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대웅전의 건립과 함께 현재의 장소로 이전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³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약 50~60여 년 전 당시 오봉사 주지스님이 흩어져 있던 석탑의 석재를 모아 다시 쌓아 올리면서, 없어진 부분은 새로운 부재로

제작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하였다고 한다. 반면, 현재 오봉사 주지스님인 정덕스님에 따르면 현재 탑의 위치에서 약 50m 아래 즉, 축대의 하단 주변이 원위치였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오봉사 삼층석탑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석탑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은 확실하다. 현재 석탑은 지대석과 상륜부가 없으며, 하층기단부, 상층기단부, 초층~삼층까지의 탑신부로부터 이루어져 있다(도 2). 그리고 상륜부에 있는 둥근 형태의 돌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문화유적 총람 홈페이지와 2003년 아산시 문화유적본포지도에 실린 오봉사 삼층석탑에는 없어 후대의 것으로 판단된다.⁴ 상륜부를 제외한 당시 탑의 높이는 240~250cm로 기술되어 있다.⁵

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제5집, 온양시·아산군편-』(1991), pp. 80-81; 국립문화재연구소.
 2 현재 오봉사는 북쪽을 정면으로 가람을 배치하였는데, 산기슭에 3단의 인위적인 축대를 쌓았다. 가장 상단에 대웅전을, 중단은 요사채와 가건물 1동 그리고 상단의 대웅전과 일적선이 되는 위치에 삼층석탑이 있다. 하단에는 가건물로 지은 공양간 1동이 있으며 그 주변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3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앞의 책, p.112. 그러나 항간에 고아원 등의 시설을 자비원으로 칭하기도 하였다는 말이 있으나 위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전국문화유적총람 홈페이지 <http://all.nricp.go.kr/search/search3.jsp?mcidx=33597> 참조.
 5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앞의 책, p.112;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소, 앞의 책, p.278.



도 3 오봉사 삼층석탑 상층기단(現 서면)

탑은 전체적으로 파손과 마모가 심한데, 하층기단부와 상층기단의 갑석 그리고 초층 옥개석, 이·삼층 옥개석은 파손이 심한 상태이며, 탑신석 역시 모서리를 중심으로 깨지는 등 마모되어 있다. 이외에 석탑 전체에 이끼와 지의류로 인한 손상도 관찰된다. 이러한 파손들은 탑이 원래 위치했던 장소에서 도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마을주민들이 흠어져 있던 석

탑의 석재를 모아 당시 주지스님이 재축조했다는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현재 석탑의 상층기단을 보면 윗면이 아래면 보다 살짝 넓어 보인다(도 3). 실제 그 수치를 확인한 결과 윗면이 83.2cm, 아랫면이 82.2cm로 윗면이 1cm정도 더 넓다. 이는 안솔림 기법으로 조성된 상층기단이 현재는 뒤집어져 있는 것으로, 50여 년 전 재축조 당시 잘못 쌓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층기단부터 3층 옥개석까지 석재의 재질과 치석 수법, 이끼 및 지의류 그리고 마모된 정도 등으로 보아 마을주민들의 말처럼 이후 새로 만들어 첨가된 석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탑의 중심 축선이 초층 옥개석부터 삼층 옥개석까지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최근 석탑 해체 후 재축조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도 2 참조). 중심 축선에서의 이탈과 상층기단을 거꾸로 쌓은 것은 전반적으로 오봉사 삼층석탑의 비례가 어색하게 보이는 이유이다.

두 번째는 석탑의 원위치로 현 주지스님은 석탑의 약 50m 정도 위치의 이동은 있었으나 오봉사 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에서는 寺域 아랫부분에 「자비원」이라 적힌 건물이 있던 곳에 탑이 세워졌다고 서술되어 있다. 전술한 두 경우는 묘사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오봉사 삼층석탑의 원위치가 오봉사로 사역 내에서 약간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약 50~60여 년 전 당시 오봉사 주지스님이 흠어져 있던 석탑의 석재를 모아 다시 쌓아 올렸다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오봉사 주지스님이 흠어져 있던 탑의 석재를 모아 자비원 건물이 있던 곳에 탑을 재축조하였고 다시 현재의 위치로 이동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석재들이 흠어져 있었던 원장소는 어디일까? 주민들 역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오봉사 주변에서 석재 및 와편들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석탑의 원소재지가 오봉사 일대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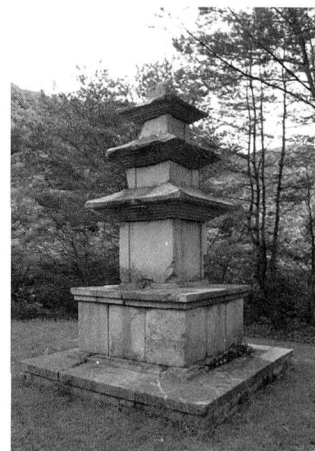
2. 삼층석탑의 특징

오봉사 삼층석탑은 일반적으로 고려석탑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조성된 우리나라의 석탑은 약 1,000여기 정도로, 이 중 고려시대 석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⁶ 고려시대 석탑 중에서도 조형성이 뛰어난 석탑은 백제 지역이었던 충청남도와 전라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오봉사 삼층석탑은 현재높이 약250cm 정도의 비교적 작은 석탑으로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이중기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삼층의 탑신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지대석과 상륜부는 결실된 상태이다. 하층 기단부는 기단 갑석과 면석 그리고 하대 저석이 1매의 석재로 조성되었으며, 크기는 하층기단 갑석 너비는 약 110cm, 하층기단 면석의 너비 105cm, 높이는 22cm이다. 하층기단 면석의 각 면에는 우주와 탕주가 생략된 채 2구의 안상을 시문하여 총 8구의 안상이 새겨져 있다(도 4). 석탑에 안상이 있는 사례는 통일신라시대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도 5)과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 창녕 술정리 서삼층석탑 등의 상층기단 그리고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하층기단 그리고 범어사 삼층석탑의 상·하층기단 등이 확인된다. 오봉사 삼층석탑과



도4 오봉사 삼층석탑 하층기단과 안상



도5 무장사지 삼층석탑, 통일신라, 現高 500cm, 경북 경주 암곡동

⁶ 박경식, 『KOREAN Art Book 탑파』(예경, 2001), p. 223.



도6 천흥사지 오층석탑, 고려, 現高 530cm, 충남 천안 성거읍 대흥리



도7 개심사지 오층석탑, 고려 1010년, 高 430cm,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동(박경식, 『KOREAN Art Book 탑파』예경, 2001, p253 도83 전재)



도8 사자빈신사지 석탑, 고려 1022년, 現高 560cm, 충북 제천 한수면 송계리



도9 오봉사 삼층석탑 상층기단 갑석 세부

같이 하층기단에 안상을 시문하는 것은 특히 고려시대에 더욱 성행하였으며 안상 내부에 무늬가 없는 사례로 광주 춘궁리 삼층석탑,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도 6) 등이 있다.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도 7)과 같이 안상 내부에 십이지신장상을 조각하거나 혹은 정두사지 오층석탑, 제천 사자빈신사지 석탑(도 8)과 같이 고려시대 특유의 솟아오른 꽃무늬를 새기기도 한다. 오봉사 삼층석탑 하층기단 갑석 상면에는 상층기단 받침이 매우 얇게 조각되어 있어 받침이 거의 생략되었는데 이 역시 고려시대 석탑에 나타나는 요소이다.

상층 기단부는 상층기단과 상층기단 갑석을 각기 1매씩 별도로 만들었다. 상층기단 갑석의 너비는

102.2cm, 높이는 25cm이다. 상층기단 갑석은 上面에 호형의 탑신받침을 아주 얇게 모각하고 그 위에 각형을, 다시 얇은 호형을 그리고 다시 그 위에 호형받침을 두고 마지막으로 각형의 받침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받침은 그 두께가 미비하여 탑신받침의 최상면의 테두리를 그은 듯 표현하였다(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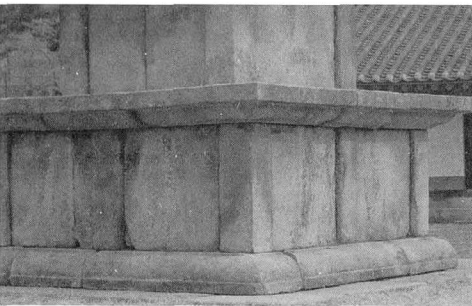
통일신라 9세기 중엽까지 초층 탑신받침을 두 단의 각형으로 조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다면 9세기 중엽 이후에는 각형과 호형의 두 단 구조 그리고 별석으로 받침을 조성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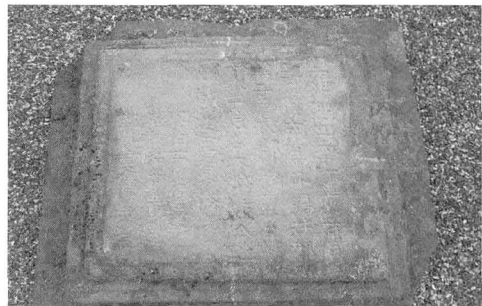
도10 승안사지 삼층석탑, 고려, 現
高 400cm, 경남 함양 수동면
우명리

등 다양하다. 이는 고려시대에 이전의 받침들을 수용하면서 오봉사 삼층석탑과 같이 다단의 구조로 더욱 발전하거나, 새롭게 연판문이 초층 탑신받침(도 10)으로 등장 혹은 과감히 생략되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⁷ 상층기단 갑석의 下面에는 부연을 구성하고 있다. 부연의 형태는 약간 사선을 이루며 그 끝은 다소 둥근 모습이다. 부연은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 각이 진 형태로 흔히 나타나는 형식이다. 반면 고려시대의 부연은 각형 이외에 호형, 사선 등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무량사 오층석탑(도 11)에서 호형의 부연을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천흥사지 오층석탑, 남계원 칠층석탑, 제천 사자빈신사지 석탑 등 고려의 석탑에서는 빈번하게 보인다. 오봉사 삼층석탑은 사선의 형태와 부연의 끝이 다소 둥근 모습으로 고려시대 석탑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식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탑의 구성과 관련된 명문은 상층기단 上面에서 발견되었는데, 8행 55字이다. 외부에서 확인된 탑신받침 최상면의 미세한 테두리는 명문기록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가로 53.3cm, 세로 54.2cm이다(도 12). 상층기단의 너비는 약 83cm, 높이는 52cm로 탑 전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례를 보인다. 기단의 양 모서리에 12cm 너비의 우주가 각기 모각되어 있으며 중앙에 탕주를 구비하고 있다. 탕주의 너비는 13cm이고, 탕주로 인해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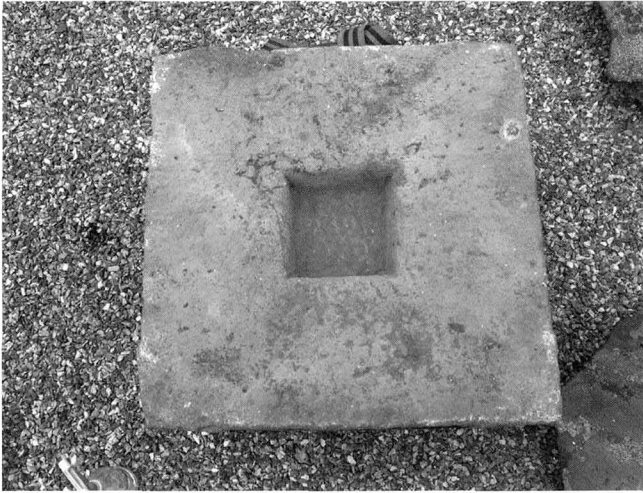


도11 무량사지 오층석탑 기단부 부연 모습, 고려, 高
750cm, 충남 부여 외산면 만수리



도12 오봉사 삼층석탑 상층기단 上面에 음각된 명문

7 고려시대 탑신받침에 관한 연구는 홍대한, 「고려초 석탑의 탑신받침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사학』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pp. 601-627 가 있다.



도13 오봉사 삼층석탑 초층탑신의 사리공

할된 2개의 면석은 그 너비가 23cm이다. 전술하였듯이 현재 상층기단은 거꾸로 뒤집혀진 상태로 다시 쌓아올려졌으며, 안솔림 기법으로 조성된 원래의 상층기단의 상면이 아래쪽으로 놓임으로 해서 탑은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정해 보인다. 게다가 탑의 중심 축선의 이탈 역시 탑의 비례가 불균형해 보이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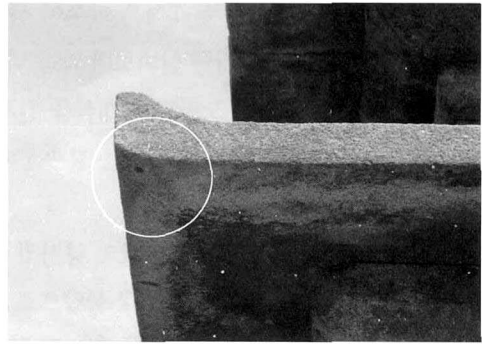
다음으로 탑신부는 탑

신과 옥개석이 각기 1매씩 별도로 제작되었으며, 3층까지 조성되어 있다. 초층부터 삼층까지의 탑신은 모두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너비는 각각 57cm, 41cm, 33cm, 높이는 34cm, 16.2cm, 10.2cm이다. 초층 탑신에는 한 변의 크기가 약 16cm, 깊이는 6.3cm인 방형의 사리공을 마련하였다(도 13). 초층 탑신에 방형의 사리공이 등장하는 예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부터 확인되며 그 시기는 대략 8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확인된다. 이후 9세기 석탑과 고려 시대 석탑에서는 초층 탑신에 사리장엄구를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으로 오봉사 삼층석탑 또한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층과 삼층 탑신은 부분적으로 파손이 있으나 양식적인 특징은 초층 탑신과 같다.

옥개석의 경우 이층과 삼층 옥개석은 파손이 심해 옥개석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초층 옥개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초층 옥개석은 현재 북면부가 가장 잘 남아 있는데, 최대 너비는 약 89cm이며 옥개받침까지 포함한 두께는 48cm이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옥개받침에 비해 옥개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 다소 늘리는 듯 보여 자칫 둔중함을 느낄 수 있다(도 2 참조). 고려 석탑의 옥개석 특징은 거의 대부분 옥개석에서부터 옥개받침까지의 두께가 얇고 처마 끝의 반전으로 매우 가볍고 유려함을 보인다. 오봉사 삼층석탑은 이에 비해 옥개받침까지의 옥개석의 두께가 두꺼워 기존의 고려 석탑에서 보이는 날렵한 인상은 없지만 처마 끝을 반전함으로써 둔중한 느낌은 없다(도 14). 옥개석의 처마는 반전과 함께, 처마 양 끝 하단부 역시 처마의 반전과 같은 각도로 가공·처리하여, 석재임



도14 오봉사 삼층석탑 초층 옥개석의 모습



도15 정림사지 오층석탑 옥개석의 처마 끝 세부



도16 오봉사 삼층석탑 옥개석의 처마와 옥개받침 간의 넓은 폭



도17 오봉사 삼층석탑 초층 옥개석의 절수홈

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처마선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고대 백제 석탑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도 15),⁸ 고려시대 석탑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옥개받침에서 처마까지의 거리 혹은 폭이다. 오봉사 석탑은 3단의 옥개받침부터 옥개석의 처마까지의 폭이 매우 넓은데, 옥개석의 표현에 있어 고려 석탑과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이다(도 16).⁹ 초층 옥개석에만 절수홈이 확인되며, 이 삼층 옥개석에는 절수홈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 절수홈은 초층 탑신의 사리공 내에 안치되었을 사리장엄구 보호와 관련된 장치로 판단된다(도 17).

⁸ 정림사지 오층석탑, 미륵사지 서석탑, 왕궁리 오층석탑 등 백제 석탑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논지는 2009년 3월 21일 신라사학회에서 한정호의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과 사리장엄구' 발표에서 제기되었다.

⁹ 박경식, 「백제계석탑의 건립 배경에 관한 고찰」, 『문화사학』 24(한국문화사학회, 2005), p.62

이층 옥개석과 삼층 옥개석은 파손이 심하나, 처마와 옥개받침 간의 넓은 폭은 초층 옥개석과 동일하다. 현재 크기를 살펴보면 각각 너비는 약 71cm, 57cm이며, 두께는 38cm, 27cm이다. 삼층 옥개석의 경우 노반과 옥개석을 일체형으로 조성하였으며, 노반의 너비는 약 24cm, 높이는 5.1cm이다. 노반의 중앙에는 찰주공이 확인되는데, 찰주공의 지름은 대략 6cm, 깊이는 9cm이다.

이상과 같이 오봉사 삼층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봉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현재 높이는 약 277.5cm이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대표적인 특징인 이중기단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탑신 받침의 다단구조, 옥개석의 경우 처마의 반전 및 처마 하단부의 처리 그리고 옥개받침과 옥개석 처마 간의 넓은 폭 등 고려시대 석탑의 대표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초층 탑신에 방형의 사리공을 배치하였으며 초층 옥개석에서만 절수홈이 나타나는 특징도 확인된다.

이외에 오봉사 삼층석탑은 원위치에 대한 문제점과 지대석이라는 일부 석재의 결실과 기존 석재의 파손으로 옮겨왔을 당시 새로운 석재의 첨가 및 기존 석재의 결실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새로운 석재의 첨가는 없었으며 결실된 부재 즉 탑신부에서 석재의 이탈도 없었다. 현재 재축조 당시 행해진 탑신과 옥개석 간의 중심축선의 이탈과 치우침이 보이는 하지만, 초층 탑신과 초층 옥개석 그리고 초층 옥개석의上面과 이층 탑신석 그리고 이층 옥개석의 상면과 삼층 탑신석 및 삼층 옥개석이 정확히 맞물리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더불어 삼층 옥개석의 일체형 노반과 찰주공을 통해 조성 당시 삼층석탑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Ⅲ. 명문 판독과 분석

오봉사 삼층석탑의 상층기단 갑석上面에서 8행 55자로 陰刻된 해서체 명문이 발견되었다(도 12 참조, 도 18). 명문이 刻字된 공간은 가로 53.3cm, 세로 54.2cm의 구획을 마련하였는데, 초층 받침 중 최상단에 해당하여 탑신이 놓일 경우 명문은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구조이다. 명문은 우측에서 시작되어 좌측으로 진행되며, 縱書로 1행부터 8행까지 기록하였다(표 1).



도18 오봉사 삼층석탑 상층기단上面에 음각된 명문(탁본)

표 1 오봉사 삼층석탑의 상층기단 갑성 上面 명문

8행	7행	6행	5행	4행	3행	2행	1행
執 筆 僧 法 崇	道 糧 行 者 貴 達	大 伯 士 德 達	雙. 願. 敬 造 寶 塔	家 口 信 名 大 娘 救 命 之	第 二 戶 長 鄭 弘 廉 矣	菩 薩 戒 第 子 湯 井 郡	雍 熙 四 季 丁 亥 二 月 日

1행은 석탑을 조성한 시기를, 2행은 석탑을 조성하였던 지역, 3행부터 5행까지는 발원자와 조성배경, 6행부터 8행까지는 석탑조성에 참여한 장인들을 적고 있다. 먼저 1행은 '雍熙四年丁亥二月日이다. '옹희'는 중국 송나라 태조의 연호로 옹희 4년 丁亥는 987년, 고려 성종 6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987년 2월 조성으로 2월 15일 석가모니의 열반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2행의 '菩薩戒弟子湯井郡'은 보살계제자 탕정군이라는 뜻이다. 먼저 '보살계제자'에서 '보살계'는 원래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지녀야 할 계율이었으나, 승려 이외 俗家의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특히 고려시대는 국시를 불교로 정해 다스렸던 만큼 국왕이 보살계를 받는 기록은 『高麗史』를 통해 매우 빈번하게 확인된다.¹⁰ 즉 11세기 전반 덕종부터 공민왕까지 역대 군주들이 궁중에서 보살계를 수계하는 것이 항례화되었다.¹¹ 이러한 당시 왕실의 분위기는 귀족 계급과 기타 지방 호족세력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지배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많은 불사वाद도 관련될 것이다. '보살계제자'라는 명문이 확인되는 고려시대 작품으로

¹⁰ 중국의 경우, 국왕이 보살계를 받는 것은 남조의 송에서 시작하여 제, 양 이래 수, 당대에 까지 걸쳐 널리 행해졌다. 남동신,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2005), p. 87.

¹¹ 삼국시대의 경우 신신사마에불상군의 명문 중 3행에서 '보살계제자'가 확인된다. 최원식, 『신라보살계사상사연구』(민족사, 1999), pp. 56-57.

는 1009년에 조성된 성풍사지 석탑¹², 1021년 흥국사 석탑¹³, 1022년 사자빈신사지 석탑¹⁴, 1164년 장감사 청석탑¹⁵, 1019년의 임강사 종¹⁶ 등이 있다.

두 번째 탕정군은 바로 석탑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탕정군에 대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9권 충청도 온양군편에 상세히 적혀있다.

…본래 백제의 湯井郡이었는데, 신라 文武王때에 州로 승격시켜 摠管을 두었다가, 뒤에 州를 폐하고 郡으로 하였고, 고려 초기에는 溫水郡으로 고쳤으며, 顯宗 9년에 天安府에 붙였고, 明宗 2년에는 監務를 두었던 것을, 본조 태종 14년에 新昌과 병합하여 溫昌이라 칭호를 고쳤더니, 16년에 이를 다시 나누어 溫水縣을 설치하였는데, 세종 24년에 임금이 온천에 거둥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郡으로 승격시켰다…

…燕山 郡 북쪽 2리에 있는 이 고을 鎭山이다. 排方山 郡 동쪽 8리에 있는데, 산마루에 네 개의 봉우리가 똑같이 대치하고 있어 가장 奇觀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속칭 過雁峯이라 한다. 西達山 郡 남쪽 3리에 있다. 松岳山 郡 남쪽 23리에 있다. 華山 郡 남쪽 11리에 있다. 巨次羅山·月羅山 모두 郡 서쪽 7리에 있다. 廣德山 郡 서남쪽 13리에 있다…

기록에서와 같이 삼국시대의 탕정군은 백제 지역으로, 백제시대에는 탕정군과 아술현 그리고 굴직현의 1군 2현으로 나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문무왕 초기 일시적으로 현재 아산시(구 온양시)를 중심으로 탕정주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지방제도가 9주 5소경으로 새롭게 편제되면서 탕정주 대신 탕정군으로 격하되며 음봉현(백제의 아술현)과 기량현(백제의 굴직현)을

¹² 菩薩戒弟子高麗國靈 岳縣戶長朴文英特爲 邦家鼎盛朝野益女 敬造立五層石塔安 置聖風大寺永充 供養也 統和二十七年己酉六月日記 (황수영, 『고려석탑의 연구』, 『황수영전집』 3, 해안, 1998, p. 224.)

¹³ 菩薩戒弟子平章事姜邯贊 奉爲 邦家永泰遐邇常安敬造 此塔永充 供養 時天禧五年五月 日也 (황수영, 앞의 책, 1988, p. 217)

¹⁴ 佛弟子高麗國中州月 岳師子頻迅寺棟梁 奉爲 代代 聖王恒居萬歲天下大 平法輪常傳此界他方 永消怨敵後愚生婆娑 既知花藏迷生即悟正 覺敬造九層 石塔一坐永充供養 大平二年四月日謹記 (황수영, 앞의 책, 1998, pp. 218-219.)

¹⁵ 奉佛弟子高麗國淸州牧內淸塘 地長岬寺住持重大師靈椿茲以 聖祚無疆諸有永文虎百官忠 淸輔國干戈息靜風雨調和先亡 嚴父超生淨土現存慈母延長 生普及含靈齊登彼岸之願敬造 青石塔一座九層兼香臺安置釋 迦文佛以立金剛種子云 時正豐七季三月 日誌 (황수영, 앞의 책, 1998, p. 224.)

¹⁶ 菩薩戒弟子高麗國興麗府棟梁僧彦脩名保 戶長陪戎校尉金瑤含…□□□□ 聖壽天長鴻基長久隣兵永息□□上興 立願鑄成金鍾一口重五百斤觀者□容端 正聲響淸高掛於當府內臨江寺者竺謹 疏天禧三年龍集己未十二月□□日謹記 (황수영,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1994, p. 302.)

영현으로 두었다. 음봉현은 오늘날의 영인, 인주, 음봉, 둔포, 영치 등이며, 기량현은 오늘날의 신창, 도고, 선장 등지이다.¹⁷ 『新增東國輿地勝覽』 제 19권과 20권에 따르면 고려초기에는 인주(백제의 아슬현), 온수군(백제의 탕정군), 신창현(백제의 굴직현)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초기 기록 중 『高麗史節要』 제 1권 戊子 11년(928)에는 ‘여름 4월, 고려 태조가 탕정군에 행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오봉사 삼층석탑 명문 역시 ‘탕정군’이므로 ‘온수군’으로 개칭한 고려 초기의 상한연대는 987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아산 지역 중 탕정군의 위치는 고대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9권 충청도 온양군편의 기록 중 산천조에 지금도 그 명칭이 바뀌지 않은 배방산, ‘송악산’, ‘광덕산’ 등이 확인되어 오늘날의 온양1동~온양6동의 아산시와 광덕산과 송악산이 있는 송악면 그리고 배방산이 위치한 배방면이 오봉사 삼층석탑이 조성되었던 987년의 탕정군 영역으로 판단된다. 기록에는 이들 산 이외의 ‘연산’, ‘서달산’, ‘화산’, ‘거차라산’, ‘월라산’ 등이 확인되나 현재의 명칭과 일치하는 산은 없으며, ‘설화산’도 없다. 하지만 2010년에 발행된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에서는 설화산과 설화산 북쪽으로 南山寺가 『1872년 지방지도-온양』에 표기되어 있고, 『조선지형도』에도 송악면과 배방면 경계에 설화산과 배방산이 마주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설화산의 異稱으로 ‘서달산’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달산이 왜 설화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없지만 서달산이 설화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하면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9권 충청도 온양군편 불우조에 ‘過雁寺, 麒麟寺, 南山寺가 모두 서달산에 있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1872년 지방지도-온양』의 설화산 북쪽에 표시되었던 南山寺가 고려시대 서달산의 南山寺와 동일하다고 추론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탕정군이 기록된 『東史綱目』 제5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戊子年 왕 金傳 2년 진훤 37년 고려 태조 11년(후당 명종 천성 3, 거란 태종 천현 3, 928)...

...추7월 진훤이 군사를 靑州에 보내어 고려 임금 建을 엄습하니, 고려 장군 유검필이 공격하여 패배시켰다. 고려왕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三年山城 지금의 槐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드디어 청주로 가니, 백제가 金萱·袁式 등을 보내어 군사 3천여 인을 거느리고 와서 침략하였다. 이때, 검필이 湯井郡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고을 남산에 올라가 앉아...

¹⁷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앞의 책, pp. 20-22.

라는 기록이 있다. 밑줄에서 검필이 올라 앉은 남산은 탕정군에 있는 남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오봉사가 위치한 설화산을 마을 주민들은 온양의 남쪽에 있다고 하여 남산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서달산에 있던 ‘南山寺’도 남산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서달산의 위치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군 남쪽 3리’에 있다고 하였다. 설화산은 고려시대 탕정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달산 이외 ‘군 남쪽 11리’에는 화산도 위치한다. 오늘날의 현재 아산사에서 고려시대의 탕정군의 위치를 감안하고 ‘군 남쪽 3리’와 ‘군 남쪽 11리’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서달산은 지금의 설화산이고, 화산은 태화산이 될 수 있다.

탕정군과 관련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이외, 『世宗實錄』地理誌 충청도 청주목 온수현편¹⁸, 『燃藜室記述』별집 제16권 地理典故 州郡 온양편¹⁹, 『高麗史節要』제1권 태조신성대왕편²⁰ 등에서도 확인된다.

3행은 ‘第二戶長鄭弘廉矣’으로 앞의 2행과 연결하면 보살계제자인 탕정군 제 2호장 정홍림이 된다.²¹ 즉, 발원자가 987년 당시 탕정군에서 제 2호장을 역임하였던 정홍림이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호장은 고려시대 향리층 중에서 최상위층을 형성한 자들로 호장제도는 『高麗史』에 의해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에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堂大等を 戶長이라 하고, 大等を 副戶長으로 칭한다.’ 하여 호장의 직제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²² 그리고 호장의 상하관계는 權知戶長-攝戶長-戶長-上戶長(首戶長, 爲頭戶長)-安逸戶長(致仕戶長) 순으로 구분되며 승진하였다. 관지호장은 일종의 임시직, 섭호장은 정식으로 호장직을 얻기 전 명칭, 상호장은 각 호장들을 대표하고 통솔하게 되며, 안일호장은 70세에 그 직에서 물러난 자를 일컫는 말이다.²³

18 ... 본래 백제의 湯井郡인데, 唐나라 咸亨 2년에 신라 文武王이 州로 승격하여 總管을 두었고, 함형 12년에 州를 폐하여 郡으로 삼았다. 고려 때에 溫水郡으로 고쳤고, 顯宗 2년에 天安府 임내에 붙였다가, 明宗 2년 임진에 비로소 監務를 두었고, 본조 太宗 갑오에 新昌과 합쳐 溫昌으로 고쳤으나, 병신에 다시 갈라서 縣監을 두었다. ...

19 ... 백제 때의 湯井郡이니, 신라 때 주로 승격시켰고 고려 초기에 溫水郡으로 고쳤다. 태종 갑오년에 新昌과 합쳐서 溫昌이라 일컫다가 병신년에 그전 이름을 회복했고, 세종 임술년에 온양군으로 고쳤다. 溫泉이라고도 한다. 8면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2백 33리이다. ...

20 무자 11년(928), 후당 천성 3년·거란 천현 3년...여름 4월에 湯井郡(충남 溫陽)에 행차하였다. ...

21 ‘廉’이외 ‘兼’과 ‘屏’일 가능성도 있지만 글자에서 확실히 ‘广’자가 나타나 ‘兼’보다 ‘廉’으로 파악했다. 또한 ‘广’ 안에서 한자 획 중 빼짐과 파임이 확실히 보여 ‘屏’ 역시 배제하였다.

22 『고려사』 75卷 選舉志 3, 鄉職.

“成宗二年改州府郡縣吏職以兵部爲司兵倉部爲司倉堂大等爲戶長大等爲副戶長郎中爲戶正員外郎爲副戶正執事爲史兵部卿爲兵正筵上爲副兵正維乃爲兵史倉部卿爲倉正.”

23 김갑동, 「고려시대의 호장」, 『한국사학보』 5(고려사학회, 1998), p. 203.

호장이 대대로 그 지역에서 토착하며 강한 勢를 가진 집단, 즉 호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견해이다.²⁴ 반면 호장과 부호장의 계급이 그들의 근원적인 신분적 차이에서 구분된다 고 하며 호장은 기존의 의견과 동일하나, 부호장 이하 낭중계열은 신라시대부터 존속하던 행정 棼에서 출발했다는 의견도 있다. 나아가 호장은 중앙에서 직첩을 발급하였으며, 중앙 관리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지방에서 주도적 위치를 지녀, 부호장 이하의 향리와는 다른 신분적 위치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²⁵

그렇다면 오봉사 삼층석탑에서 확인되는 ‘제 2호장’은 호장으로 파악할 때와 부호장으로 해석할 때, ‘정홍림’이라는 인물의 위치는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고려시대의 호장체계에 있어 ‘제 2호장’이라는 용어는 각종 유물 및 금석문 혹은 자료 등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어 오봉사 삼층석탑 명문의 새로운 학술적 가치도 주목된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 2호장’의 정의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몇 가지 기록을 토대로 추론해보고자 한다.

호장이란 행정체제의 시행에 대한 공식적 기록은 고려 성종 2년인 983년부터이며, 현종 9년(1018)에는 이들의 정원에 대해 규정한 기사가 확인된다. 이를 요약해보면 州·府·郡·縣에서 1000丁 이상인 경우 호장의 수는 8명, 부호장은 4명, 500丁 이상은 호장 7명, 부호장 2명, 300丁 이상은 호장 5명, 부호장 2명, 100丁이하는 호장 4명, 부호장 1명이다.²⁶ 이는 호장과 부호장의 인원수를 규정한 것으로 호장과 부호장의 체제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종 13년인 1022년의 최사위의 상소문에는 “향리의 부르는 칭호가 복잡하다. 이제부터는 여러 州·府·郡·縣의 吏는 계속 戶長이라 부르고 鄉·部曲·津·驛의 吏는 長으로 부르게 하소서.”라는 내용

²⁴ 고려시대 호장과 관련한 논문은 김갑동, 「고려시대의 호장」, 『한국사학보』 5(고려사학회, 1998); 박경자, 「고려 향리제도의 성립」, 『역사학보』 63(역사학회, 1974); 박은경, 「고려시대 군현제와 향촌지배단위」, 『한국향촌사회연구』 (일조각, 1996); 조영재, 「고려초기 향리직의 유래에 대한 소고-향리직명의 변화를 중심으로」, 『부산사학회』 4(부산사학회, 1980); 원성식, 「고려시대 호장층 연구」(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훈상, 「고려중기 향리제도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아연구』 6, 1985; 이순근, 「고려초 향리제의 성립과 실시」, 『김철준화갑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3) 등이 있다.

²⁵ 원성식, 「高麗時代 戶長層 研究」(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²⁶ 『고려사』 75卷 選舉3 鄉職

“顯宗九年定: 凡州府郡縣千丁以上戶長八人 副戶長四人 … 五百丁以上戶長七人 副戶長二人 … 三百丁以上戶長五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二人…百丁以下戶長四人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一人…東西諸防禦使鎮將縣令官千丁以上戶長六人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二人…百丁以上戶長四人副戶長以下並同千丁以上州縣. 百丁以下戶長二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一人… 是年判: 諸道外官戶長舉望時考其差年久近壇典行公年數具錄申省方許給貼. 十三年四月崔士威奏: “鄉吏稱號混雜, 自今諸州府郡縣吏仍稱戶長鄉部曲津驛吏只稱長.” 從之. 十六年二月判: 諸州縣長吏病滿百日依京官例罷職收田.

이 있다.²⁷

동일한 내용이 『고려사』 94권 列傳7 崔士威조에도 보이는데, “여러 州·縣의 長吏를 부르는 칭호가 혼잡하다. 이제부터 郡·縣이상의 吏는 戶長, 鄉·部·曲·津·亭·驛의 吏는 長으로 부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²⁸ 이를 통해 여러 명의 호장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호장의 별칭은 그들의 행정 편의상 불가피했을 것이며, 여러 호장에게 불리는 다수의 명칭은 혼잡한 결과까지 초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봉사 삼층석탑에 음각된 ‘제2호장’ 역시 여러 호장 중 한 호장으로서는 역임한 정홍림의 호장에 대한 별칭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정홍림’이라는 인물이다. ‘정홍림’은 사료에서 파악되지 않지만 성씨를 통한 족보로의 접근과 호장이란 직책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호장을 역임하는 호족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家格이 높은 姓씨를 중심으로 세습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²⁹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9권 온양군편의 성씨조에는 본군에 鄭, 李, 方, 康이 있으며, 尹은 村姓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정씨라는 성은 智伯虎라는 인물이 삼한시대 辰韓 斯盧 6촌장의 하나인 珍支部의 촌장으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신라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공으로 개국 佐命功臣이 되었고, 32년인 유리왕 9년에 진지부가 本彼部로 개칭되면서 樂浪侯에 봉해지면서 정씨라는 성을 하사받았다.³⁰ 정씨의 본관은 현재 총 247본이 있으며,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약 30본 정도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성씨들이 고대 본관을 중심으로 주거하였던 것에 착안한다면 ‘정홍림’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된 충남지역을 본관으로 둔 정씨 중 ‘溫陽鄭氏’가 주목된다. 온양정씨는 경주정씨에서 파생된 성씨이며, 시조는 鄭普天으로 고려시대 은청광록대부 호부상서를 지낸 인물이다.³¹ 이어 정보천의 선조는 고려 태조의 명을 받아 湯泉郡城을 축성하는 大役事의 감독관에 제수되어 민심을 순화한 공으로 태조로부터 온양호장을 자손에게 세습하게 하여 막중한 영광을 누리는 업적을 남겼다고 한다.³² 따라서 고려시대 호장을 포함한 향리가 해당 지방의 인물들로 구성되며, 중앙에서 직접 파견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정홍림은 고려 태조 때 관에 제수된 이후 대대로 호장을 맡은 온양 정씨 일가

27 『고려사』 75卷 選舉3 鄉職 “顯宗九年定：凡州府郡縣千丁以上戶長八人…十三年四月崔士威奏：“鄉吏稱號混雜，自今諸州府郡縣吏仍稱戶長鄉部曲津驛吏只稱長。”從之…”

28 『고려사』 94권 列傳7 崔士威 “…諸州縣長吏稱號混雜自今郡縣以上吏稱戶長鄉部曲津亭驛吏只稱長。”從之….”

29 원성식, 앞의 논문, pp. 20-22.

30 『三國史記』 권제1 신라본기 제1 유리이사금 9년, 『三國遺事』 1권 기이 신라시조박혁거세왕.

31 온양정씨대동보편찬위원회, 『溫陽鄭氏大同譜』 권지1(2000), p. 28.

32 온양정씨대동보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5.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4행은 ‘家口信名大娘救命之’으로 3행과 함께 ‘정홍림의 집안에서 청신자인 큰누이가 구멍 하고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³³ ‘娘’은 아가씨, 누이로서 ‘大’자와 결합하여 ‘큰 누이’로 해석된다. 또한 ‘之’의 그것은 뒤의 5행을 받는 지시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당시 정홍림 일가의 어떠한 사건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

5행의 경우 첫 자는 마치 물고기 두 마리를 간략화한 듯한 상형문자처럼 보여 확인되지 않는 글자이다. 글자의 모양에서는 ‘双’ 또는 ‘并’일 가능성이 높으며 문맥으로는 ‘願’으로 볼 수 있다. 그 뒤의 글자는 ‘敬造寶塔’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탑을 조성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앞 글자를 ‘双’으로 본다면 “청신자인 큰누이가 구멍을 겸하여 보탑을 세웠다.”, ‘願’으로 할 경우 “청신자인 큰누이가 구멍의 원으로 공경하여 보탑을 세웠다.”로 해석된다. 그리고 ‘并’이라면 “청신자인 큰 누이가 그것을 구멍하였고, 아울러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탑을 조성하였다.”가 된다.

6행부터 마지막 8행까지는 석탑 조성에 직접 참가한 직책과 인물들이다. 이 중 6행의 ‘大伯士德達’에서 ‘대백사’는 大匠의 의미를 지닌 공사의 책임을 맡은 자를 일컫는 관직의 명칭 또는 장인으로 생각된다.³⁴ ‘대백사’가 명기된 작품들은 8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고려시대 1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문헌에 등장한다.³⁵ 즉, 799년에 제작된 용봉사 마애불조상기의 ‘大伯士元鳥法師’³⁶를 비롯하여, 879년 선방사 탑지석에서는 ‘大伯士釋林典道如’³⁷, 963년 고미현의 서원중에서는 ‘大百士 羅州只未伐’³⁸, 990년의 미륵사지 토기편에서는 ‘大伯士奉聖’³⁹, 그리고 997년 장명사지 탑지에는 (大)伯士禮靈□□□金位 等⁴⁰으로 쓰여 있다. 그런데 불상, 종, 탑 등 조성 분야

33 ‘家’자가 다른 글자에 비해 다소 크지만 앞서 ‘雍’자와 뒤에 나올 ‘寶’자의 크기 그리고 문장 해석 등을 감안해 보면 ‘家’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34 이와 같은 의견은 박남수, 『신라수공업사』(신서원, 2009), pp. 307-308, 김창겸, 「미륵사지 석탑발견 명문의 대백사 봉성」, 『백산학보』 70(백산학회, 2004), p. 242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35 김창겸, 위의 논문, p. 241 표 참조.

36 貞元十五年己卯四月日仁符, □佛願大伯士元鳥法師, □香徒官人長珍大舍(황수영,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94, p. 579.)

37 乾符六年己亥五月十五日, 禪房寺塔練治內記, 佛舍利二十三, 金一分惠重入, 銀十五分道如入節, 上和上忠心, 第二志蓋, 大伯士釋林典, 道如, 唯乃志空,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p.335.)

38 伐, 昭大王當縣聰規沙干, 峻豐四年癸亥九月十八日古彌縣, 西院鑄鐘記, 徒人名□同院主, 人領玄和尚信嚴, 長老曉玄上坐欣宜□又言□, 大百士, 羅州只未伐百士(황수영, 앞의 책, 1994, p. 300.)

39 大伯士奉聖(김창겸, 위의 논문, 2004.)

40 □(淳)和十五年 □四月二十七日國□人, 安願以長命寺五層石塔造立香, 徒姓名如後, 棟梁大行明徒□尉戶長長安帝京金正崔, □(大)伯士禮靈□□□金位等, □色光□師玄肯鋤匠只未知 (황수영, 앞의 책, 1998, p.223 이 책의 경우 다섯 번째 결락된 글자를 비워두었지만 본고에서 필자는 ‘大’자로 추정하였다.)

가 매우 다양해서 대백사가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된 장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백사 바로 다음에는 인명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백사 ‘덕달’은 탑을 만든 장인으로 판단된다.

7행은 ‘道糧行者貴達’이다. ‘道糧’의 의미가 지금까지 금석문 및 사료 중에 확인된 바는 없으나 ‘道’는 ‘佛道’, ‘糧’은 식량, 돈, 자료 등으로 해석하여, 먼저 佛事に 필요한 시주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棟梁’과 같은 용어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많은 범종, 반자, 향완, 선사비 등의 유물에서 ‘동량’이 기록된 사례가 확인되지만, 탑으로 범위를 제한해 본다면, 1010년에 제작된 개심사지 오층석탑, 1021년에 조성된 고흥 상림리 삼층석탑, 1022년 사자빈신사지 석탑에서 발견된다.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경우⁴¹, “...동량은 호장 배용교위 임장, 최우, 모주, 부동량은 □□, 방우다...” 고흥 상림리 삼층석탑은⁴², “...동량은 □□모보임, 사서가 한마음으로...동량은 지섭이다.” 사자빈신사지 석탑은⁴³ “불제자 고려국 중주 월악 사자빈신사 동량을 삼가 받드립니다...” 이를 통해 추정하면 불사를 위해 직접 시주한 사람, 집단, 사찰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량의 의미는 『東國李相國集』 제25권 記에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다.

“...왕륜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에는 비로자나장육상 1구가 있다. 옛날 두 비구가 있었는데 거빈과 교광이라고 들었다. 함께 발원하여 금상을 주조하고자 했는데, 세속에서는 棟梁者라 하였다. 동량자는 무릇 탑을 세우기를(즉 시주하기를) 권하거나 불사를 이루는데 가담하는 자를 칭한다...”⁴⁴

이 기록에는 ‘동량’이 불사에 필요한 시주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량행자가 동량과 같은 뜻이 된다면, 발원자의 주체인 정홍림 일가와의 관계가 모호해

41 上元甲子四十七統和二十七年庚戌年二月一日正骨開心寺 到石析三月三日光軍式六隊車十八牛一千以十間入矣僧...棟梁戶長陪戎校尉林長崔祐母主副棟梁□□邦祐」(허흥식, 『韓國金石全文』 中世上篇, 아세아문화사, 1984, pp. 433-434.)

42 天禧五年辛酉十一月□□□□人得名僧祿□棟梁□寶任」土庶共□同心」同願爲聖壽 天長國泰民安 法輪常轉□□□□石塔□□付棟樑知暹」(황수영, 『黃壽永全集 4』, 혜안, 1998.)

43 佛弟子高麗國中州月 岳師子頻迅寺棟梁 奉爲 代代...覺 敬造九層 石塔一坐永充供養 大平二年四月日謹記 (허흥식, 앞의 책, pp. 454-455.)

44 『東國李相國集』 제25권 記
 ...有寺曰王輪。是海東宗恒轉法輪之大伽藍也。寺有毗盧遮那丈六金像一軀。聞昔有二比丘。曰巨貧。曰皎光。同發願欲。鑄成金像。作俗謔所謂棟梁者。其所謂棟梁者。凡浮屠之勸人布施。營作佛事者之稱也...

진다. 즉, 정홍림 일가는 단월로서 이 탑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시주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동량과 관련된 기록 중 1233년으로 추정되는 계미명 동종⁴⁵, 대정23년명반자⁴⁶ 그리고 대정 30년명의림사반자⁴⁷가 주목된다. 먼저 계미명 동종에서 “...前 상호장이 한마음으로 금종을 만들었는데 무게는 163근이 들어갔다. 때는 계미 8월 28일로 □(안)일호장 재, 동량도인 현담, 원주대사 지성, 남일월사 의지 포봉”이라고 하였다. 1183년의 대정23년명굴석사반자에는 “대정23년 계묘년 4월 동경 북산 굴석사에 두며 무게는 7근이다. 담당하여 만든 사람은 前 호장 이백유이며, 동량도인은 □□, 대장은 의성이다.” 또한 1190년에 조성된 대정30년명의림사반자는 “충주목 선의림사에서 무신년에 도둑이 맞아 주조하게 되었는데 때는 대정 30년 경술 3월일이다. 동량은 부호장 유장보, 도인은 관심, 범명, 주지는 중대사 유중이다.”

이 기록들을 토대로 보면 道人은 승려로서 동량을 맡을 수도 있으며, 호장, 부호장 등 일반 관직의 사람 역시 동량이 가능하다. 1183년의 굴석사 반자의 경우 발원자가 ‘전 호장 이백유’이며, 동량도인 그리고 직접 반자를 만든 장인 의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량도인은 반자와 관련한 불사의 책임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1190년 의림사 반자의 경우 동량이 부호장 유장보이다. 동량이 시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부호장 유장보가 시주하여 발원한 것을 알 수 있다. 뒤이어 도인은 관심, 범명으로 나오는데 이 또한 불사에 관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직책을 칭하는 용어이다. 1024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에 보면 어울촌주가 동량이 되어 백미와 적미를 내고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확인된다.⁴⁸ 즉, 동량은 불사와 관련된 시주와 불사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파악되며, 상황에 따라 주된 시주자와 불사 관련을 총괄하는 임무로 세분화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봉사 삼층석탑의 경우 정홍림의 발원으로 불사 관련 시주가 확보되었고, 탑의 직접 조성은 장인 대백사가, 탑과 관련한 모든 불사에 관련된 소임은 도량행자가 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道糧行者’는 도량 또는 동량을 행한 자라는 의미로서 석탑 조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불사를 주관한 인물이 ‘귀달’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⁴⁵ 奉佛弟子南瞻副州高麗國 竹州大惠院金鍾造成 特爲 聖窮萬歲國土太平法界 生亡共增菩提之愿以 前上戶長同心爲金鍾入重 壹百陸十三斤印 時癸未 八月二十八日 □送戶長 在 棟梁道人賢堪 院主大師智成 南日月寺依(止)□布奉 (황수영, 앞의 책, 1994, p. 541.)

⁴⁶ 大定二十三年癸卯四月 日東京北山屈石寺排入重七斤次知造前戶長李伯俞棟梁道人□□大匠義成 (황수영, 앞의 책, 1994, p. 590.)

⁴⁷ 忠州牧禪義林寺 戊申年盜取因衆緣鑄成懸排時大定三十年庚戌三月 日記 棟梁副戶長劉張輔 道人冠心 法明 住持重大師惟中 (황수영, 앞의 책, 1994, p. 590.)

⁴⁸ “...於乙村主爲棟梁白粥赤粥(齋)...”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중수문서』, 2009, p. 80.)

8행은 ‘執筆僧法崇’이다. ‘집필승’은 명문을 짓고 각자한 인물로 승려 법승이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명문을 해석하고 분석해 보았다. 오봉사 삼층석탑은 987년 제작되었고 보살계 제자인 탕정군의 제2호장인 정홍렴 일가에서 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료에 기록된 향리의 직제는 호장-부호장이지만 이 기록은 ‘제 2호장’을 적고 있다. ‘제 2호장’은 호장에 여러 명이 임명되는 행정규정상의 사례를 들어 이들 각 호장들의 이칭 정도로 파악해 보았지만, 자료의 불충분으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탕정군을 다스렸던 최고의 관리에 의해 이 석탑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석탑 조성을 총괄했던 대백사는 덕달, 석탑 조성이라는 불사를 관장하였던 인물은 귀달 그리고 승려 법승은 석탑에 새길 명문의 내용과 刻字를 한 승려로 파악하였다.

IV. 오봉사 삼층석탑의 미술사적 의의

오봉사 삼층석탑은 명문이 각자된 위치가 탑이 완성되었을 경우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주목되며, 석탑의 원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석탑의 갑석에 명문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 사찰을 거쳐 간 주지스님들에 석탑의 부재들을 모아 원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알려졌던 듯하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석탑에 새겨진 명문의 위치이다. 상층기단 갑석 上面에 음각되어 있어 탑신부를 쌓을 경우 탑의 외형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석탑에 명문이 刻字되는 위치는 여러 유형이 있다. 첫째는 상층기단 면석으로 대표적인 예는 통일신라시대 758년의 김천 갈항사지 동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의 사례로서는 1021년에 조성된 개성 흥국사탑과 고흥 상림리에 있는 석탑, 1022년의 제천 빈신사지 석탑, 1031년의 칠곡 정두사지 오층석탑 등이 있다. 두 번째는 탑신석에 刻字한 사례이다. 비록 조성 당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7세기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탑으로는 한산 지현리 삼층석탑(991), 영변 보현사탑(1044년), 해주 신광사석탑(1343) 등이 확인된다. 세 번째는 1348년의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과 같이 초층탑신 이마돌에 새기기도 한다. 즉, 고려시대 석탑에 새겨진 명문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새겼던 상층기단 면석이 고려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탑신석에 기록하는 것 역시 꾸준히 지속된 듯하다.

오봉사 삼층석탑과 같이 상층기단 갑석에 명문을 기록한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면이 다

르긴 하지만 가장 유사한 예는 상층기단 갑석 下面에 記刻한 1011년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으로 이 형식도 고려시대에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경우도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사례로서 오봉사 삼층석탑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석탑에 새긴 명문의 위치는 완성 당시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것과 확인할 수 없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면에 새기는 명문의 경우 그 내용으로 볼 때 자긍심을 가지고 탑 조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물론 갈항사지 석탑의 경우 758년 경덕왕대에 조성하였으면서도 명문은 경신대왕 즉, 원성왕 재세시 추각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오봉사 삼층석탑의 명문 중 4행의 ‘家口信名大娘救命之敬造寶塔’에서 ‘그것을 구명한다.’가 주목된다. ‘之’가 뒤의 보탑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홍립 일가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이에 대한 구명 또는 사죄의 차원이라면, 이 경우 造塔記를 석탑 표면에 새길 수 없어 기단 부 갑석에 새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명문의 끝 부분에 석탑을 만든 장인인 大伯士와 더불어 道糧行者, 執筆僧 등 석탑 제작에 관여한 인물들을 밝힌 점이다. 이는 나말여초기에 제작된 작품들에 기재된 일반적인 형식으로 비문의 경우 음기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종사찰의 경우 院主僧, 典座僧, 維那僧, 直歲僧과 같은 三綱典의 구성원 등이 각각의 맡은 직함과 이름을 밝히는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시대의 불국사 목서지편에서도 언급되어 있다.⁴⁹ 오봉사 석탑 명문에 기재된 불사를 행한 인물들의 명칭은 고려전기 불사의 동향이라든지 관련 장인과 불사에서의 역할 분담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파악된다. 대백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불상이나 석탑, 범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장인을 일컫는 용어로 추정된다. 장인에 대한 명칭은 현재의 문헌기록만으로 본다면 박사라는 명칭이 9세기말에서부터 10세기까지 주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754년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에 처음으로 紙作伯士라는 단어가 보이고 8세기말인 799년 용봉사 마애불에서 대백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9세기부터 10세기의 불교미술에 종사했던 장인의 명칭은 크게 博士와 伯士로 분류되며 좀더 세밀하게 철장이나 석장, 각자 등으로 분명하게 표기하기도 한다. 다만 박사의 경우 8세기부터 주로 국가적인 큰 사업이나 왕실, 귀족 계층에서 주도된 작품들에 보이는 반면 지방 불사라든지 승려의 경우 백사로 표기된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홍성 용봉사 마애불의 대백사 원오법사, 선방사탑지의 대백사 僧侶

⁴⁹ 최연식, 『석가탑 발견 목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 『불국사 석가탑 목서지편의 기초적 검토-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pp. 68-70.

임전과 법여는 승려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나주 고미현 서원종의 대백사 只未 伐 등은 지방에서 제작된 불상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941년에 제작된 경청선원 자적선사 능운탑비에는 참여자 기록에 鐵匠 能式居士 石匠 相昕,⁵⁰ 944년 오봉사 법경대사 보조혜광비탑에도 石匠□□□, 흥녕사 장효대사탑비의 경우 崔奐規 刻字등으로 기록한다.

대백사 또는 백사라는 명칭은 11세기 이후 거의 없어진다. 재료와 관계된 철장이나 석장 등은 계속 이어지며 1024년 승가대사상의 광배 처럼 ‘磨琢者釋光儒’ 또는 ‘工人’ ‘大匠’⁴⁹ 등 새로운 장인에 대한 명칭 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즉 9-10세기 박사나 대백사로 통칭되던 장인들의 명칭이 장르나 재료에 따라 서서히 분파되기 시작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석탑의 원위치이다. 오봉사 삼층석탑은 옥개석과 상층기단 갑석, 하층기단부가 심하게 파손되고 마모되었으며 그에 비해 탑신부와 상층기단이 양호한 편이다. 마을 주민들과 오봉사 주지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오봉사 삼층석탑은 원래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탑의 부재들을 오봉사로 가져와 다시 만들었다고 하였다. 즉, 오봉사가 삼층석탑의 원소재지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명문의 ‘탕정군’에서 조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처음 조성 당시 현재 아산시인 온양 1동~온양 6동을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봉안 사찰의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제 19권 충청도 온양군 佛宇조에 의하면 ‘過雁寺·麒麟寺·南山寺는 西達山에 있으며, 木寺는 排方山, 隈菴·玄雨寺·中菴은 華山에, 石菴寺는 松岳山에 있다.’고 적혀있어 고려시대에 이 지역에 있던 많은 사찰들이 확인된다.

이 석탑의 원소재지는 어디일까? 당시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재들을 오봉사 주지가 수거하여 오봉사로 가져가 석공을 불러 새로운 부재를 끼워 함께 만든 것이다.’라고 전하는 마을 주민들은 설화산 일대 장전동 주민들이며 아산시에서도 다른 동에서는 이 석탑의 移轉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다시말해 장전동 주민들이 명확히 당시의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 오봉사 삼층석탑이 ‘탕정군’ 즉, 아산시 중에서도 장전동 일대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삼층석탑은 상단부로 갈수록 파손과 마모가 심한 현상이 확인된다. 상층기단 갑석과 하층기단까지 파손의 영향이 미쳤다는 것은 탑 자체가 단순히 무너졌다기 보다 기단부까지 전복되었을 수 있다. 이는 탑이 골짜기라든지 비스듬한 사면으로 굴러 2차적 타격을 받았던 것

50 경청선원 자적선사 능운탑비(한국역사연구회편, 『역주 나팔여초금석문(상)』, 혜안, 1996, p. 105 참조.)

51 경상남도 옥천사소장 1252년 임자안양사명반자를 비롯한 반자 제작자에 대해서는 최응천, 「고려시대 청동금구의 연구」, 『불교미술』9(동국대학교박물관, 1988), pp. 100-102 참조.

으로 추정된다. 현재 오봉사는 산기슭에 비스듬히 삼단의 축대로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며, 사찰 우측으로는 골짜기가 확인된다. 그리고 오봉사 주변에서 고려시대 토기와 석재편 등이 발견되어, 주민들이 말하는 ‘주변’은 설화산의 오봉사 주변 일대일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새로운 석재의 보강’에 대해서는 탑신과 옥개석을 쌓을 때의 맞물림, 탑의 비례감 그리고 삼층 옥개석과 노반의 일체형 등을 통해 후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흩어져 있던 석재들을 재축조할 당시 상층기단을 거꾸로 적조한 것과 부재들이 탑의 중심축에서 이탈하여 약간 기울어진 듯한 현상으로 탑의 비례가 불안정해 보인다.

네번째는 석탑의 양식적 특징이다. 이중기단에서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보인다. 삼단의 옥개받침과 처마 끝단까지의 폭이 넓은 옥개석, 처마 끝 전각의 반전 부분에 있는 석재를 살짝 치듯 가공함으로써 목조 건축의 처마선을 살린 모습 등이다. 또한 초층 옥개석의 절수홈은 초층 탑신에 위치한 사리공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과 삼층 옥개석에는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아산시 오봉사 삼층석탑의 현상과 특징 그리고 명문 등을 고찰하였다. 이 석탑은 고려 초기 석탑의 양식을 보이지만 원소재지와 원 부재의 소실 그리고 새로운 석재와 재축조 등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석재의 재질과 치석 수법 그리고 기단부 및 탑신과 옥개석의 결구구조 등으로 이 탑은 지대석과 상륜부만 결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층기단의 안쏠림기법이 거꾸로 된 현상과 탑신과 옥개석이 탑의 중심축선에서의 이동은 이 탑이 도괴되었다 다시 축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리고 기단 갑석 상면에 기재된 내용 분석을 통해 고려 초기인 987년 조성되었으며, 탕정군 즉 아산시(현재 온양1동~6동)에서 최고 향리 제2호장 정홍렴 일가에서 발원해 조성된 탑임을 알 수 있었다.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책이 ‘대백사’, ‘도량행자’, ‘집필승’등 명확히 기재되고 있으며 이름까지 밝힘으로써, 석탑 조성에 참여한 승려들과 분업화된 불사의 한 면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탑과 관련한 소재지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료 및 금석문의 기록을 통해 탕정군, 설화산, 호장 등을 파악해, 987년이라는 명문과 함께 명문의 기재 위치, 불사의 특징과 제 2호장을 통한 고려의 지방 관직 및 지역성 연구 등을 시도하였다. 오봉사 삼층석탑을 연구한

본 논문은 향후 탐파사 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들의 연구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 _ 아산(Asan), 오봉사(OBong temple), 고려시대(Goryeo dynasty), 삼층석탑(Three-story Stone Pagoda), 명문(record), 탕정군(TandJungGoon), 옹희4년(the Forth of OngHee in Sung dynasty)

■ 투고일 2011년 11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1년 12월 3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21일 ■

참고문헌

1. 사료 및 문집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史綱目』
『練藜室記述』
『東國李相國集』

2. 단행본

강우방, 신용철 『탑』, 솔, 2003(2007 2쇄).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중수문서』, 2009.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 충청편』, 2010.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_____, 『KOREAN ART Book 탑파』, 예경, 2001.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2009.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제5집, 온양시·아산군편-』, 1991.
『역주 한국고대금석문』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온양정씨대동보편찬위원회, 『溫陽鄭氏大同譜』 권지1, 2000.
최원식, 『신라보살계사상사연구』, 민족사, 1999.
한국역사연구회편, 『역주 나말여초금석문(상)』, 혜안, 1996.
허흥식, 『한국금석전문 中世上』, 아세아문화사, 1984.
황수영,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1994.
_____, 『황수영전집』3, 혜안, 1998.

3. 논문

- 김갑동, 「고려시대의 호장」,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 김정기, 「백제계석탑의 특징」, 『마한 백제문화』 1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7.
- 김창겸, 「미륵사지 석탑발견 명문의 대백사봉성」,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 남동신,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2005.
- 박경식, 「백제계석탑의 건립 배경에 관한 고찰」, 『문화사학』 24, 한국문화사학회, 2005.
- 신대현, 「백제탑 및 백제계 석탑 사리장엄 고찰」, 『동악미술사학』 7, 동악미술사학회, 2006.
- 원성식, 「高麗時代 戶長層 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성중, 「백제계석탑에 관한 일고찰」, 『사학지』 20-1, 단국사학회, 1986.
- 정영호, 「고려 석탑의 양식상의 특성」, 『동양학』 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6.
- _____, 「고려시대석탑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11, 단국대학교, 1977.
- 천득연, 「백제계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 논문, 1990.
- 최연식, 「석가탑 발견 문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 『불국사 석가탑 문서지편의 기초적 검토-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재단 법인 불교문화재단연구소, 2008.
- 최우천, 「고려시대 청동금고의 연구」,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박물관, 1988.
- 홍대한, 「고려초 석탑의 탑신받침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사학』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 황수영, 「고려석탑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175 · 176, 한국미술사학회, 1987.

국문초록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오봉사에는 대웅전 앞에 고려시대의 삼층석탑이 한 기 있다. 이중기단과 삼층의 탑신부로 구성된 삼층석탑으로 현재 상륜부와 지대석은 없어진 상태이다. 단축한 기단부의 갑석 너비, 상층기단의 안솔림 기법과 초층 탑신에 비해 이층과 삼층의 탑신을 비교적 낮게 조성한 비례감, 초층 탑신 받침의 여러 단의 구조, 옥개석 하면의 옥개받침과 처마까지의 폭이 넓은 점 등이 특징으로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석탑이다. 또한 사리공은 방형으로 초층 탑신에 배치되어 있으며, 초층 옥개석에는 절수홈이 남아 있다. 이 석탑은 옥개석의 마모와 지대석의 결실 등 조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뛰어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최근 석탑의 상층기단 갑석 上面에서 ‘雍熙四年’이라는 제작시기와 발원자 및 제작한 장인 등을 기록한 명문이 발견되었다. 8행 55자로 음각된 명문에 따르면 987년 2월 菩薩戒弟子인 湯井郡 제 2호장 정홍림 일가에서 寶塔으로 조성하였으며 탑 제작에 참가한 大居士 德達, 道糧行者 貴達, 執筆僧 法崇 등의 직책과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다. 대백사는 탑을 만든 장인으로 승려 덕달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백사라는 장인의 명칭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전기까지만 사용되었던 명칭으로 탑 뿐 만이 아니라 불상, 종 등 불사 제반에 걸친 장인들의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려전기 이후부터는 대백사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명칭으로 장인을 부르게 된다.

석탑의 경우 명문이 刻字되는 위치는 매우 다양한데 크기는 탑 표면과 탑의 내부에 기록하는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탑 표면인 상층기단의 면석이나, 탑신석, 초층탑신의 이맛돌에 새겨진 경우에는 확인이 쉬운 편으로, 1021년에 조성된 개성 흥국사탑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많은 예가 남아 있다. 반면 오봉사 삼층석탑은 내부에 새겨진 명문은 분리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봉사 석탑에서 발견된 석탑 내부에 명문을 새기는 방법은 보편화된 유형은 아니므로 향후 탑과 연구에 있어 석탑에 새겨지는 명문의 위치에 관련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오봉사 삼층석탑에 기록된 명문은 고려 초기 석탑의 제작시기와 후원자 및 제작자는 물론 석탑 조성 당시의 기타 제반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전반적인 고려 초기 석탑의 시기 및 양식 변천 그리고 석탑 발원자 등을 이해하는 자료적 가치가 기대된다.

Abstract

Three-story Stone Pagoda with Inscriptions of Obongsa Temple in Asan, Chungnam

Jeong Eun-woo* and Kim Ji-hyeon**

A three-story stone pagoda stands outside the Daeungeon, the main worship hall, of Obongsa, a Buddhist temple located in Asan, Chungcheongnam-do. With its main body mounted on a two-tiered stone base, the three-story pagoda is missing the finial and the foundation stones. The pagoda has a series of inscriptions incised on the top surface of the cover slab of its upper base stone, including a date inscription that reads “Onghui (Yongxi in Chinese) fourth year” and others indicating the name of the sponsor who commissioned and financed its construction and names of stone workers who constructed it. According to this eight-line epigraph, containing fifty-five total characters, the pagoda was created in February of 987, by the initiative of the family of a certain Jeong Hong-ryeom, a devout Buddhist who was then the administrator of the County of Tangeong-gun. The epigraph also lists the names and titles of people involved in the project. We learn from it that Daebaeksa was the stonemason, and Deokdal was the monk who supervised the project. “Daebaeksa,” however, is a generic term for an artisan, which was us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fell out of currency after the early Goryeo period. This name, therefore, appears to

* Professor,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Dong-A University

** Lecturer of Art History at Dongguk University at Gyeongju and Dong-A University

comprehensively refer to all builders and artisans who were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this temple; in other words, not just the pagoda, but also the temple itself, including the Buddhist sculptures and temple bells housed in it.

The inscriptions of the Obongsa Temple pagoda, providing the precise date of construction of this early Goryeo stone pagoda along with the list of people involved, including the sponsors and artisans, are invaluable for the insights they offer into the gener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eation of this pagoda. These inscriptions, meanwhile, could also assist with the periodization of early Goryeo stone pagodas, understanding of their stylistic evolu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ir sponsors.